

##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 어머니-유아 관계, 교사-유아 관계의 중재효과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vity Temperament and  
Self-Regulation Ability in Young Children

: The Moderating Effects of Mother-Child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s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학과

박 사 서 은 희\*\*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과

교 수 이 미 숙\*\*\*

Dept. of Living Culture Studies, The Catholic Univ. of Korea

Ph.D. : Seo, Eun-Hee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 of Korea

Professor : Lee, Mi-Sook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moderating effects of mother-child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s in regar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vity temperament and self-regulation ability in young children. The participants were 236 mothers and 15 teachers who were in charge of children, who were 5 years old in kindergartens or childcare facilitie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The key research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the children's activity temperament exerted negative influence over their behavioral and emotional self-regulation ability. Secondly, it was found that an affectionate relationship between mother and child was proven to have some moderating effect, thus influenc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vity temperament and self-regulation ability in a child. Anyway, there was no moderating effect of the rejection in mother-child relationship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vity temperament and self-regulation ability in a child. Thirdly, it was found that both intimacy and conflict in teacher-child relationships had no moderating effects when it cam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vity temperament and self-regulation ability in young children.

---

▲주요어(Key Words) : 활동성 기질(activity temperament), 자기조절능력(self-regulation ability), 어머니-유아 관계(mother-child relationship), 교사-유아 관계(teacher-child relationship)

---

\* 본 연구는 2011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본 논문은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임.

\*\* 주 저 자 : 서은희 (E-mail : daiong35@hanmail.net)

\*\*\* 교신저자 : 이미숙 (E-mail : misooklee@catholic.ac.kr)

## I. 서론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조절할 줄 알며, 상대방의 행동·사고·감정 등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에 필수적이다(Parker & Asher, 1987; Honig & Wittmer, 1994). 더욱이 현대는 사회적으로 승인된 상황에서 적응력과 융통성있는 방법으로 외부의 자극에 대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반면,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다양한 미디어 매체의 노출로 인하여 유아들은 또래관계 형성의 어려움과 행동조절의 어려움 등 자기조절과 관련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Lee, 2011),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Lee & Hyun, 2010). 따라서 원만한 대인관계와 성취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사회화 과정에서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여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일시적인 충동을 자제하며 인내할 수 있는 자기조절능력의 획득이 필수적이다(Park & Lee, 2011). 특히 유아기는 자기조절능력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며, 자신의 행동을 자발적으로 주도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증가되는 시기로서, 유아기의 자기조절능력은 유아기 이후의 인지능력과 사회·정서적 능력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이며 유아의 사회화 과정에서 발달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Kopp, 1982; Caspi et al., 1995). 발달특성상 유아는 자신의 욕구나 행동을 조절하기 어려우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성취하지 못할 때 많은 갈등과 좌절을 경험한다. 그러나 자아인식이 증가하고 사회화되면서 유아들은 자신의 행동과 정서를 스스로 조절하기 시작한다(Kopp, 1982). 이처럼 자기조절능력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유아초기부터 아동기에 걸쳐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달하게 되고(Park, 2002), 유아기의 자기조절력은 주의집중력과 인지적 통찰능력의 발달과 함께 적절한 사회화 과정을 거쳐 아동중기,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친다(Lee, 1996). 유아기부터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자기조절능력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많은 연구들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규명하여 왔다.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주로 유아의 연령과 기질(Kwak, 1998; Park, 2002; Lee, 2003; Choi & Kim, 2005; Chung, 2005; Kim, 2006; Yoon, 2007; Kim, 2008; Jang, 2009) 등 유아의 개인 내적 요인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Park, 2002; Lee, 2003; Chung, 2005; Kim, 2006; Cho, 2008; Kim et al., 2008; Jang, 2009; Choi, 2010), 그리고 교사-유아 관계(Yu & Kwon, 2008; Lee & Hyun, 2010) 등의 외적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 가운데서 특히 유아의 기질은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적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질적 특성은 자기조절능력의 발달과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소이다(Low, 2003). 기질은 환경적 사건들에 대해 정서적 및 행동적으로 반응하는 개인의 특징적 모드로서(Shaffer, 2002: 502) 아동의 사회적 관계를 조절하는 것을 도와주는 과정들을 포함한다(Goldsmith & Campos, 1982: 3). 기질은 아동과 환경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적절한 결과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며(Bates, 1980), 사회·정서발달을 예측하는 변인들 중의 하나이다(Min, 1998).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유아의 기질적 특성 중에서 적응성, 생리적 규칙성, 반응성, 정서성 기질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과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활동성 기질의 경우에는 일부 연구들(An, 2005; Ko, 2007; Kim & Lee, 2008; Jang, 2009; Hwang, 2010)을 제외하고, 많은 연구들에서 자기조절능력과 부적 관계(An, 1997; Buss & Goldsmith, 1998; Mary & Laura, 1998; Kwak & Cho, 1999; Lengua, 2002; Park, 2002; Choi & Kim, 2005; Chung, 2005; Choi & Kim, 2006; Kim, 2006; Kim, 2006; Yoon, 2007; Kim, 2008; Kim, 2009; Choi, 2010; Park & Lee, 201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성 기질은 다양한 활동에 대해 신체적 움직임이 활발한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유아기의 건강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연구들에서 유아의 활동성 기질은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자기조절능력을 가장 잘 예견해주는 변인으로 지적되고 있음(An, 1997)을 고려할 때,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를 계속 규명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에는 양육자의 역할이 또한 중요하다. 양육자가 일상생활에서 유아에게 규칙을 부여함과 동시에 규칙을 이해시키면서 행동하도록 요구하고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 유아의 자기조절은 긍정적으로 발달한다(Yu & Kwon, 2008). 특히 어린 유아일수록 어머니와의 긍정적 유대감은 유아로 하여금 부모의 지시나 요구에 따른 자신의 행동조절을 기꺼이 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으며(Chung, 2005), 부모의 애정을 잃지 않거나 확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모에게 순응하고 자신을 조절한다(Lee, 1996). Kim et al.(2008)은 어머니가 애정을 가지고 반응해주면서 자녀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상호작용하거나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태도나 행동을 보이는 것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발달과 관련될 수 있다고 하였다. Lee(2009)의 지적과 같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인정과 지지 및 지원은 유아 자신에 대한 긍정적 표상과 함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의

중요한 자원이 되며, 특히 어머니가 유아와 애정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유아는 자신의 행동 및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부모와 유아 간 상호작용의 질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어머니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유아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조절능력을 발달시키게 되므로(Cho, 2008),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있어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어머니-유아 관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온정적이며 지지적인 행동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Dunn & Kendrick, 1980; Kuczynski & Kochanska, 1990; Silverman & Ragusa, 1990; Granlinski & Kopp, 1993; Kochanska & Aksan, 1995; An, 1997; Kang, 2001; Lee, 2001; Lee, 2004; Kwon, 2005; Cho, 2008; Kim et al., 2008), 냉정하고 무반응적이거나 거부적인 행동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ottman & Katz, 1989; An, 1997; Kochanska, Cay, & Murray, 2001; Lee, 2001; Lee, 2004).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독립효과를 주로 밝힌 반면, 유아의 기질적 특성과 어머니-유아 관계가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중재적 역할이 어떠한지 규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기질 특성은 생후 초기부터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McCall, 1990), 상황으로부터 지원적이거나 긍정적 피드백을 받으며 긍정적 양육행동을 경험하는 아동들이 가장 적응적 행동 발달을 보인다(Luster & Okagaki, 1993: 171). 유아는 개인 내적 요인인 기질에 따라 자신의 행동이나 정서를 표현하는 방식과 조절능력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이후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유아는 자신의 가정이나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서반응이나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해나간다(Yoon, 2007). 따라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중요하며,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유아 관계가 상호작용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를 파악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유아의 활동성 기질이 자기조절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유아 관계가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상호작용하여 자기조절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중재효과를 규명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교사-유아 관계 또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외적 환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아기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환경적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보호와 교육을 포괄

하는 교사의 역할과 임무는 이 시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기숙 등, 2009: 231, 233-234). 특히, 가족구조의 변화, 형제수 감소, 취업도 증가,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과 확대 등으로 인해 유아교육의 대상연령이 하향화되고, 대다수의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교사와 유아 관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Oh, 2010).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유아의 연령에 적절한 자기조절 행동을 기대하며 일관성있게 설득하는 교사의 역할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Bergin & Bergin, 1999).

Hestenes, Kantos, and Bryan(1993)은 교사가 유아의 반응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상호작용 수준을 높일수록 유아는 긍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하며, 긍정적 행동수준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Eisenhower, Baker, and Blacher(2007)는 유아의 행동 및 정서조절의 차이는 교사-유아 관계 질의 차이로 설명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교사와 유아 간 상호작용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의 활동성 기질을 고려하여 교사-유아 간 상호작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바람직한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유아 간 관계는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자기조절능력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유아 관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사-유아 간 친밀감이 높고 갈등이 낮을수록 유아의 행동조절능력(Lee & Hyun, 2010)과 정서조절능력(Kim & Jeon, 2010)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Yu(2009)의 연구에서는 교사와 유아 간의 갈등관계가 자기조절능력 중 행동억제와는 부적 관계, 그리고 자기조절능력 중 정서성과는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유아 간의 친밀감은 유아의 자기통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사-유아 간의 갈등관계는 유아의 자기통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 Lee, 2011). 그러나 이들 연구는 교사-유아 관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독립효과를 주로 규명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사-유아 관계가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중재효과를 함께 규명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의 개인 내적 요인인 활동성 기질을 비롯하여 외적 요인인 어머니-유아 관계 및 교사-유아 관계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계속 규명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과 유아교육현장이라는 서로 다른 상황에 따라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정과 유아교육현장의 각 상황에서 어머니-유아 관계와 교사-유아 관계가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비교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유아의 기질, 어머니-유아 관계,

교사-유아 관계가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독립효과를 주로 밝힌 반면, 어머니-유아 관계, 교사-유아 관계가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상호작용하여 어떠한 중재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해 규명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즉, 외적 환경요인으로서의 어머니-유아 관계, 그리고 교사-유아 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유아의 개인 내적 변인인 활동성 기질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에 대해 미치는 중재적 역할이 어떠한지 규명해보고, 이를 통해 어머니와 교사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밝혀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에 대해 어머니-유아 관계, 그리고 교사-유아 관계의 중재효과가 어떠한지 알아보려는데 있다. 이를 통해 가정과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를 지도하는 부모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바람직한 유아 지도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활동성 기질은 자기조절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1] 유아의 활동성 기질은 행동조절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2] 유아의 활동성 기질은 정서조절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유아 관계는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를 중재하는가?

[2-1] 어머니-유아 관계는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행동조절능력과의 관계를 중재하는가?

[2-2] 어머니-유아 관계는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정서조절능력과의 관계를 중재하는가?

<연구문제 3> 교사-유아 관계는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를 중재하는가?

[3-1] 교사-유아 관계는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행동조절능력과의 관계를 중재하는가?

[3-2] 교사-유아 관계는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정서조절능력과의 관계를 중재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인천광역시 소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5세 유아 236명과 유아의 어머니 236명, 담임교사 15명이다. 유아기는 자기조절능력이 급속히 발달하는 시기이며, 타인의 의지에서 자신의 의지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이다(Kopp, 1989). 또한 자기조절능력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발달한다. 따라서 연령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만 5세 유아로 한정하여 연구대상을 선정하였으며, 비슷한 조건의 유아교육기관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유아의 성별은 남아 113명(47.9%), 여아 123명(52.1%)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어머니의 연령은 35~39세가 132명(55.9%)으로 가장 많았으며, 30~34세가 51명(21.6%), 40세 이상이 46명(19.5%)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29세 이하는 7명(3.0%)으로 가장 적었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125명(53.0%)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 58명(24.6%), 4년제 대졸 48명(20.3%), 대학원졸 5명(2.1%)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 중에서 전업주부는 95명(40.3%)이었으며, 59.7%가 취업주부였다. 취업주부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전문직 43명(18.2%), 기타 35명(14.8%), 사무직 31명(13.1%), 판매·서비스직 28명(11.9%)이며, 생산직은 4명(1.7%)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소득은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71명(30.1%),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67명(28.4%), 400만원이상 60명(25.4%), 200만원미만 38명(16.1%)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연령분포는 20~30세 9명(60.0%), 31~40세 6명(40.0%)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전문대졸 10명(66.7%), 4년제 대졸 5명(33.3%)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기관별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8명(53.3%), 법인어린이집 교사 5명(33.3%), 사립유치원 교사 2명(13.3%)으로 대부분 어린이집 교사였으며, 교사들의 경력은 4년 이하, 5~6년, 7년 이상이 각각 5명(33.3%)씩 나타나 고른 분포를 보였다.

### 2. 측정도구

#### 1) 자기조절능력

Lee(2003)가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개발한 부모용 유아 자기조절척도를 참고하여 행동조절과 정서조절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행동조절은 10개 문항으로 외적 통제에 순응하며, 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거나 좀 더 좋은 보상을 위해 행동을 지연시키고, 내면화된 규칙을 지키기 위해 관련된 행동을 통제하는 정도를 말한다. 문항의 예를 들면, “놀이를 하다가 다른 친구가 자기가 놀던 장난감을 빼앗으면 기분은 나쁘지만 양보하는 편이다” 등과 같다. 정서조절은 7개 문항으로 정서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서, “새로운 것을 하라고 하면 어렵다고 하거나 짜증을 내는 편이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에 이르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 및 정서 조절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때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은 역점수화 하였다.

본 검사는 유아의 어머니와 담임교사가 각각 평정하도록 하였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어머니 또는 교사가 평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이라는 각기 다른 두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가정에서의 어머니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담임교사가 각각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문항 간 내적일치도인 Cronbach's  $\alpha$ 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행동조절은 어머니, 교사 각각 .71, .89로 나타났으며, 정서조절은 .79와 .83으로 나타났다.

## 2) 활동성 기질

Won(1990)이 번안하여 사용한 Thomas and Chess(1977)의 부모용 3~7세 유아 기질 질문지(Parent Temperament Questionnaire: PTQ) 중 활동성 기질(다양한 활동에 대해 신체적 움직임이 활발한 정도를 말하며, 예를 들면 “집안이나 집밖에서 가만히 걸어나다니지 않고 뛰어 다닌다”) 8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에 이르는 5점 척도로서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활동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때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은 역점수화 하였다. 본 검사는 유아의 어머니가 평정하였다. 문항 간 내적일치도인 Cronbach's  $\alpha$ 는 .73으로 나타났다.

## 3) 어머니-유아 관계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한 Rohner(2005)의 수용-거부 양육행동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한 Na and Lee(2008)의 척도 중 애정과 격려 요인, 적대와 공격 요인을 사용하여 애정관계와 거부관계로 구성하였다. 애정관계는 9개 문항으로 “아이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해준다”, “일상생활에 관해 아이와 이야기하고, 아이의 이야기도 들어준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거부관계는 7개 문항으로 “아이가 잘못을 저지를 경우 억박지르거나 위협적으로 대한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에 이르는 5점 척도로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애정적, 거부적 관계가 각각 높음을 의미한다. 본 검사는 어머니가 평정하였다. 문항 간 내적일치도인 Cronbach's  $\alpha$ 는 애정관계 .81, 거부관계 .85로 나타났다.

## 4) 교사-유아 관계

Pianta(1991)가 개발한 교사-유아 관계 척도(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 STRS)를 번안·수정하여 사용한 Lee(2001)의 질문지를 참고하여 친밀감(교사-유아 관계의

온정, 개방적 의사소통 정도를 말하며, 예를 들면 “나는 이 아이와 애정적이고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다”) 12개 문항, 갈등(교사-유아 간의 부정적이고 조화롭지 못한 정도를 말하며, 예를 들면 “이 아이와 나는 서로 힘들게 지내는 것 같다”) 1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에 이르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밀감 또는 갈등적 관계가 높음을 뜻한다. 본 검사는 담임교사가 평정하였다. 문항 간 내적일치도인 Cronbach's  $\alpha$ 는 친밀감 .86, 갈등 .87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아동학전공 교수 3명과 유아 교육 및 아동학전공 박사과정 이상으로 유아교육에 종사하는 교사 및 원장 4명,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교사 및 원장 2명 등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아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인천지역의 유아교육기관 원장들을 통해 협조를 구한 후 협조에 응한 사립유치원 2곳과 국공립어린이집 7곳, 법인어린이집 4곳에 어머니용 설문지와 교사용 설문지 각각 총 310부를 직접 배부하였다. 어머니용 설문지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활동성 기질과 어머니-유아 관계에 대한 것으로 각 학급의 담임교사를 통해 가정으로 배부하고 회수하였으며, 어머니용 설문지가 회수된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교사-유아 관계에 대해 교사평정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연구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0년 11월 29일부터 12월 16일까지 3주간 실시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275부(88.7%)였으며, 부실기재된 39부를 제외한 후 어머니용 설문지와 교사용 설문지가 함께 이루어진 236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각 측정도구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측정변수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에는, <연구문제 1>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측정변수의 일반적 경향

측정변수들의 일반적 경향은 <Table 1>과 같다. 먼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평정한 행동조절( $M=3.46, SD=.45$ )과 정서조절( $M=3.57, SD=.60$ )은 척도의 점수범위(1-5점)를 고려할 때 중간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평정한 행동조절( $M=3.62, SD=.69$ )과 정서조절( $M=3.65, SD=.76$ ) 역시 척도의 점수범위(1-5점)를 고려할 때 중간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활동성 기질은 평균 2.97점( $SD=.53$ )으로 척도의 점수범위(1-5)를 고려할 때 중간수준 정도로 나타났다. 어머니-유아 간 애정관계는 평균 3.95점( $SD=.45$ )으로 척도의 점수범위(1-5)를 고려할 때 중간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거부관계는 평균 2.71점( $SD=.64$ )으로 중간수준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로 나타났다. 교사-유아 관계의 경우, 친밀감은 평균 3.74점( $SD=.59$ )으로 척도의 점수범위(1-5)를 고려할 때 중간수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갈등은 평균 1.88점( $SD=.64$ )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와 교사가 각각 평가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쌍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유아의 행동조절 능력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평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3.60, p<.001$ ). 어머니보다 교사가 유아의 행동조절능력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였다. 가정과 비교할 때 단체생활에서의 규칙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는 행동조절을 보다 더 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평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측정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유아의 활동성 기질, 어머니-유아 관계, 자기조절능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유아의 활동성 기질은 어머니-유아 간 거부( $r=.24, p<.001$ )와 정적 상관이 있으며, 애정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활동성 기질은 자기조절능력 중 행동조절( $r=-.43, p<.001$ ), 정서조절( $r=-.41, p<.001$ )과 각각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유아 간 애정관계는 행동조절( $r=.32,$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Measurement Variables

N=236

Measurement variables			Mean	SD	Score ranges of scales
Mother's evaluation	Child's self-regulation ability	Behavioral regulation	3.46	.45	1-5
		Emotional regulation	3.57	.60	1-5
Teacher's evaluation	Child's self-regulation ability	Behavioral regulation	3.62	.69	1-5
		Emotional regulation	3.65	.76	1-5
Child's temperament		Activity	2.97	.53	1-5
Mother-child relationship		Affection	3.95	.45	1-5
		Rejection	2.71	.64	1-5
Teacher-child relationship		Intimacy	3.74	.59	1-5
		Conflict	1.88	.64	1-5

Table 2. Paired t-test for Mean Difference between Mothers' and Teachers' Evaluation on the Children's Self-Regulation Ability

N=236

Variables		Mean	SD	Paired t-value
Behavioral regulation	Mother's evaluation	3.46	.45	-3.60***
	Teacher's evaluation	3.62	.69	
Emotional regulation	Mother's evaluation	3.57	.59	-1.40
	Teacher's evaluation	3.65	.76	

\*\*\* $p < .001$

Table 3. Intercorrelations among Activity Temperament, Mother-Child Relationship and Self-Regulation Ability in Children  
N=236

Variables		Activity	Affection	Rejection	Behavioral regulation	Emotional regulation
Temperament	Activity	1				
Mother-child relationship	Affection	-.11	1			
	Rejection	.24***	-.36***	1		
Self-regulation ability	Behavioral regulation	-.43***	.32***	-.22**	1	
	Emotional regulation	-.41***	.25***	-.35***	.59***	1

\*\* $p < .01$ , \*\*\* $p < .001$

Table 4. Intercorrelations among Activity Temperament,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Self-Regulation Ability in Children  
N=236

Variables		Activity	Intimacy	Conflict	Behavioral regulation	Emotional regulation
Temperament	Activity	1				
Teacher-child relationship	Intimacy	-.13	1			
	Conflict	.17**	-.42***	1		
Self-regulation ability	Behavioral regulation	-.31***	.39***	-.51***	1	
	Emotional regulation	-.21**	.29***	-.63***	.68***	1

\*\* $p < .01$ , \*\*\* $p < .001$

Table 5. Regression Coefficients of Children's Activity Temperament on the Self-Regulation Ability  
N=236

Independent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Mother's evaluation				Teacher's evaluation			
	Behavioral regulation		Emotional regulation		Behavioral regulation		Emotional regulation	
	B	$\beta$	B	$\beta$	B	$\beta$	B	$\beta$
Activity	-.37	-.43***	-.47	-.41***	-.40	-.31***	-.31	-.21**
R <sup>2</sup>	.19		.17		.10		.05	
F	54.44***		48.08***		25.11***		11.23**	

\*\* $p < .01$ , \*\*\* $p < .001$

$p < .001$ ), 정서조절( $r = .25, p < .001$ )과 각각 정적 상관을 보이며, 거부관계는 행동조절( $r = -.22, p < .01$ ), 정서조절( $r = -.35, p < .001$ )과 각각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유아의 활동성 기질, 교사-유아 관계, 자기조절 능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유아의 활동성 기질은 교사-유아 관계 간 갈등( $r = .17, p < .01$ )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친밀감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유아의 활동성 기질은 자기조절능력 중 행동조절( $r = -.31, p < .001$ ) 및 정서조절( $r = -.21, p < .01$ )과 각각 부적 상관을 보인다. 교사-유아 간 친밀감은 유아의 행동조절

( $r = .39, p < .001$ ), 정서조절( $r = .29, p < .001$ )과 각각 정적 상관이 있으며, 교사-유아 간 갈등은 행동조절( $r = -.51, p < .001$ ), 정서조절( $r = -.63, p < .001$ )과 각각 부적 상관을 보였다.

2. 유아의 활동성 기질이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활동성 기질이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유아의 활동성 기질은 어머니가 평가한 행동조절능력( $\beta = -.43, p < .001$ ), 정서조절능력( $\beta = -.41, p < .001$ )과

교사가 평가한 행동조절능력( $\beta = -.31, p < .001$ ), 정서조절능력( $\beta = -.21, p < .01$ )에 대해 모두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활동성 기질이 높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유아의 활동성 기질은 어머니가 평정한 행동조절과 정서조절능력에 대해 각각 19%, 17%의 설명력이 있으며, 교사가 평가한 행동조절과 정서조절능력에 대해서는 각각 10%와 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3. 어머니-유아 관계의 중재효과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에 대해 어머니-유아 간 애정관계 및 거부관계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어머니-유아 관계의 곱으로 만들어진 상호작용항 때문에 발생하는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독립변인 값을 센터링(centering: 원점수-평균) 처리하여 편차점수로 변환한 후 각 독립변수의 편차 값을 곱해 상호작용항 값을 구하고(박광배, 2003: 336), 이를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계수 및 공차한계(Toleranc)와 분산팽창계수(VIF)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독립변인 간 상관계수는 .24이하(<Table 3> 참조)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는 어머니-유아 관계의 애정, 거부 각각 .88~.99, .92~.97 범위로, 분산팽창계수는 각각 1.01~1.13, 1.03~1.09 범위로 나타났다. 공차한계는 0.1이하일 때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며(송지준, 2009: 152; 우수명, 2007: 358), 분산팽창계수가 10 또는 하나가 적

어도 4 정도로 낮은 경우는 심각한 다중공선성이 있음을 나타낸다(O'Brien, 2007)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더빈왓슨 계수(D-W)도 각각 2.11, 2.03과 1.97, 2.07로 나타나 기준값 2에 가깝고 0 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 간의 상관이 없어(송지준, 2009: 150; 우수명, 2007: 357) 위계적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애정의 중재효과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에 대해 어머니-유아 간 애정관계의 중재효과는 2단계로 분석하였는데, 1단계에서는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어머니-유아 간 애정관계를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어머니-유아 간 애정관계의 상호작용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행동조절에 대해 살펴보면, <Table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어머니-유아 간 애정관계는 행동조절능력에 대해 각각 독립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활동성 기질이 높을수록 행동조절능력이 낮아지며, 어머니와 유아 간 애정관계가 높을수록 행동조절능력이 높아진다. 1단계에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6%이다. 2단계에서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애정의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한 결과 2%포인트의 추가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행동조절능력과의 관계에 대해 어머니-유아 간 애정관계의 중재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의 효과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어머니-

Table 6. Moderating Effect of Affection between Mother-Chil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vity Temperament and Behavioral Regulation N=236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Behavioral regulation			
		Step 1		Step 2	
		B	$\beta$	B	$\beta$
Activity Affection	-.34 .27	-.41*** .27***			
Activity Affection			-.31 .28	-.37*** .28***	
Activity×Affection			-.23	-.12*	
R <sup>2</sup>		.26		.28	
F		41.35***		29.30***	
$\Delta R^2$		.26		.02	
$\Delta F$		41.35***		4.09*	

\* $p < .05$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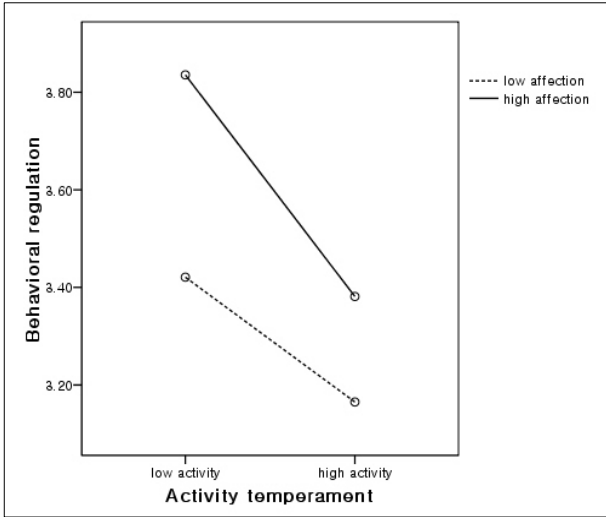


Figure 1. Moderating Effect of Affection between Mother-Chil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vity Temperament and Behavioral Reg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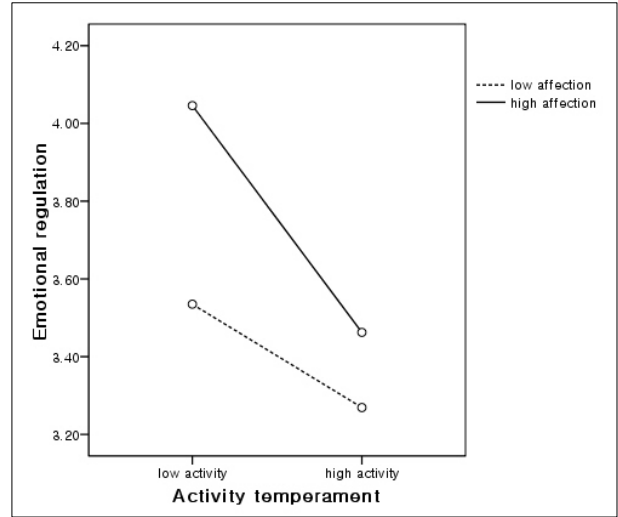


Figure 2. Moderating Effect of Affection between Mother-Chil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vity Temperament and Emotional Regulation

Table 7. Moderating Effect of Affection between Mother-Chil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vity Temperament and Emotional Regulation N=236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Emotional regulation			
		Step 1		Step 2	
		B	$\beta$	B	$\beta$
Activity					
Affection					
Activity					
Affection					
Activity×Affection					
R <sup>2</sup>		.21		.23	
F		31.12***		23.17***	
$\Delta R^2$		.21		.02	
$\Delta F$		31.12***		5.94*	

\* $p < .05$ , \*\* $p < .01$ , \*\*\* $p < .001$

유아 간 애정 수준을 중앙값을 기준으로 상집단과 하집단으로 분류한 뒤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행동조절능력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Figur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의 활동성 기질이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에 어머니-유아 간 애정의 중재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어머니-유아 간 애정관계가 높을 때 활동성 기질이 낮은 유아의 행동조절능력을 더 많이 높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정서조절에 대해 살펴보면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어머니-유아

간 애정관계는 정서조절능력에 대해 각각 독립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활동성 기질이 높을수록 정서조절 능력이 낮아지며, 어머니와 유아 간 애정관계가 높을수록 정서조절 능력이 높아진다. 1단계에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1%이다. 2단계에서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어머니-유아 간 애정의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한 결과 2%포인트의 추가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정서조절 능력 간의 관계에 대해 어머니-유아 간 애정관계의 중재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Moderating Effect of Rejection between Mother-Chil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vity Temperament and Behavioral Regulation N=236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Behavioral regulation			
		Step 1		Step 2	
		B	$\beta$	B	$\beta$
Activity Rejection		-.35	-.41***		
		-.09	-.12*		
Activity Rejection				-.34	-.40***
				-.09	-.12*
Activity×Rejection				.03	.02
R <sup>2</sup>		.20		.20	
F		29.63***		19.73***	
$\Delta R^2$		.20		.00	
$\Delta F$		29.63***		.14	

\* $p < .05$ , \*\*\* $p < .001$

상호작용의 효과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어머니-유아 간 애정 수준을 중앙값을 기준으로 상·하 집단으로 분류한 뒤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정서조절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Figur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의 활동성 기질이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에 어머니-유아 간 애정의 중재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어머니-유아 간 애정관계가 높을 때 활동성 기질이 낮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더 많이 높여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와 유아 간 애정관계는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에 대해 중재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거부의 중재효과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유아 간 거부관계의 중재효과는 2단계로 분석하였는데,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어머니-유아 간 거부관계를 1단계에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어머니-유아 간 거부관계의 상호작용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먼저, 행동조절에 대해 살펴보면, <Table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어머니-유아 간 거부관계는 각각 독립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활동성 기질이 높을수록, 그리고 어머니와 유아 간 거부관계가 높을수록 행동조절능력이 낮아졌다. 1단계에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0%이다. 그러나 2단계에서는 추가설명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어머니와 유아 간 거부관계는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행동조절능력과의 관계에 대해 중재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정서조절에 대해 살펴보면, <Table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어머니-유아 간 거부관계는 각각 독립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활동성 기질이 높을수록, 그리고 어머니와 유아 간 거부관계가 높을수록 정서조절능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4%이다. 그러나 2단계에서는 추가설명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어머니-유아 간 거부관계는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정서조절능력과의 관계에 대해 중재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유아 간 거부관계는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에 대해 중재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4. 교사-유아 관계의 중재효과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에 대해 교사-유아 간 친밀감과 갈등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교사-유아 관계의 곱으로 만들어진 상호작용항 때문에 발생하는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독립변인 값을 센터링 처리하여 상호작용항 값을 구한 후, 이를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계수 및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계수(VIF)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독립변인 간 상관계수는 .17이하(<Table 4> 참조)로 나타났다으며, 공차한계는 교사-유아 간 친밀감과 갈등 각각 .97~.99, .94~.97 범위로, 분산팽창계수는 각각 1.01~1.03,

Table 9. Moderating Effect of Rejection between Mother-Chil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vity Temperament and Emotional Regulation N=236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Emotional regulation			
		Step 1		Step 2	
		B	$\beta$	B	$\beta$
Activity					
Rejection					
Activity					
Rejection					
Activity×Rejection					
R <sup>2</sup>		.24		.24	
F		36.16***		24.85***	
△R <sup>2</sup>		.24		.00	
△F		36.16***		1.94	

\*\*\* $p < .001$

Table 10. Moderating Effect of Intimacy between Teacher-Chil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vity Temperament and Behavioral Regulation N=236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Behavioral regulation			
		Step 1		Step 2	
		B	$\beta$	B	$\beta$
Activity					
Intimacy					
Activity					
Intimacy					
Activity×Intimacy					
R <sup>2</sup>		.22		.23	
F		33.64***		22.62***	
△R <sup>2</sup>		.22		.01	
△F		33.64***		.68	

\*\*\* $p < .001$

1.03~1.06 범위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더빈왓슨 계수(D-W)도 각각 1.93, 1.80과 1.54, 1.74로 나타나 잔차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친밀감의 중재효과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교사-유아 간 친밀감의 중재효과는 2단계로 분석하였는데,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교사-유아 관계의 친밀감을 1단계에 투

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교사-유아 간 친밀감의 상호작용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먼저, 행동조절에 대해 살펴보면, <Table 10>에 제시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교사-유아 간 친밀감은 행동조절능력에 대해 각각 독립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활동성 기질이 높을수록 행동조절능력이 낮아지며, 교사-유아 간 친밀감이 높을수록 행동조절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2%이다. 그러나 2단계에서는 유의미한 추가설명력이 나

Table 11. Moderating Effect of Intimacy between Teacher-Chil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vity Temperament and Emotional Regulation N=236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Emotional regulation			
		Step 1		Step 2	
		B	$\beta$	B	$\beta$
Activity		-26	-.18**		
Intimacy		.34	.27***		
Activity				-.25	-.18*
Intimacy				.34	.27***
Activity×Intimacy				.12	.05
R <sup>2</sup>		.12		.12	
F		15.11***		10.25***	
$\Delta R^2$		.12		.00	
$\Delta F$		15.11***		.59	

\* $p < .05$ , \*\* $p < .01$ , \*\*\* $p < .001$

Table 12. Moderating Effect of Conflict between Teacher-Chil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vity Temperament and Behavioral Regulation N=236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Behavioral regulation			
		Step 1		Step 2	
		B	$\beta$	B	$\beta$
Activity		-.30	-.23***		
Conflict		-.50	-.47***		
Activity				-.29	-.23***
Conflict				-.49	-.46***
Activity×Conflict				-.08	-.04
R <sup>2</sup>		.31		.31	
F		52.02***		34.82***	
$\Delta R^2$		.31		.00	
$\Delta F$		52.02***		.61	

\*\*\* $p < .001$

타나지 않았다. 즉, 교사-유아 간 친밀감은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행동조절능력과의 관계에 대해 중재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서조절에 대해 살펴보면, <Table 11>에 제시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교사-유아 간 친밀감은 각각 독립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활동성 기질이 높을수록 정서조절능력이 낮아지며, 교사-유아 간 친밀감이 높을수록 정서조절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12%이

다. 그러나 2단계에서는 추가설명력이 나타나지 않아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즉, 교사-유아 간 친밀감은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정서조절능력과의 관계에 대해 중재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유아 간 친밀감은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에 대해 중재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Table 13. Moderating Effect of Conflict between Teacher-Chil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vity Temperament and Emotional Regulation N=236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Emotional regulation			
		Step 1		Step 2	
		B	$\beta$	B	$\beta$
Activity					
Conflict					
Activity					
Conflict					
Activity×Conflict					
R <sup>2</sup>		.41		.41	
F		80.61***		53.51***	
ΔR <sup>2</sup>		.41		.00	
ΔF		80.61***		.00	

\*p < .05, \*\*\*p < .001

2) 갈등의 중재효과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에 대해 교사-유아 간 갈등관계의 중재효과는 2단계로 분석하였는데,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교사-유아 간 갈등을 1단계에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교사-유아 간 갈등의 상호작용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먼저, 행동조절에 대해 살펴보면, <Table 12>에 제시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교사-유아 간 갈등관계는 행동조절능력에 대해 각각 독립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활동성 기질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사-유아 간 갈등이 높을수록 행동조절능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1%이다. 그러나 2단계에서는 추가설명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교사-유아 간 갈등관계는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행동조절능력과의 관계에 대해 중재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서조절에 대해 살펴보면, <Table 13>에 제시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교사-유아 간 갈등관계는 정서조절능력에 대해 각각 독립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활동성 기질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사-유아 간 갈등관계가 높을수록 정서조절능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41%이다. 그러나 2단계에서는 추가설명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교사-유아 간 갈등은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정서조절능력과의 관계에 대해 중재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유아 간 갈등관계는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에 대해 중재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활동성 기질이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활동성이 높을수록 행동조절과 정서조절능력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활동성이 행동조절과 정서조절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Kim(2006)의 연구, 그리고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기질 특성 중 활동성이 행동조절능력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Choi and Kim(2005)의 연구, 활동성이 자기통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Choi(2000)의 연구, 활동성이 정서조절 중 정서억제에 상대적으로 가장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Kim(2009) 등 선행 연구 결과들과 유사하다. 즉, 유아의 활동성 기질은 자기조절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으며, 신체적 움직임이 활발한 유아의 경우, 자신의 행동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Chung(2005)은 유아의 활동성 정도가 지나치지 않을 정도라면 활기있는 건강한 유아의 특성이므로, 자신의 놀이에너지를 적절히 발산하고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지며, 자신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외적인 규칙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적응을 할 것이며, 교육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렇지만 과활동성은 유아의 문제행동을 예견해주며(Barron & Earls, 1984), 유아기 이후의 과잉행동은 심리적 병리현상과 상관이 있다(Thomas, Chess, & Korn, 1982; Caspi et al., 1995)고 보고되고 있다. 활동성이 높은 유아는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고

(Klein, 1980, 1982; Barron & Earls, 1984; Kim, 1996, 1998; Cha, 2006), 공격적 행동을 많이 보이며(Youn, Kang, & Lee, 2005),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났다(Huh, 2008). Kim(2009)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활동성 기질이 행동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유아의 활동성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공포감, 주의산만성, 적대감·공격성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의 활동성이 높을 경우 향후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사회적응과 성공적 성취를 위해서는 활동성 기질이 높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일시적인 충동과 만족을 자제하고 감정과 행동을 적절히 표출하며 바람직한 결과나 목표를 위해 인내하는 능력을 갖도록(Choi, 2001)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켜 줄 필요가 있다 하겠다. 자기조절능력은 유아기에 수행되는 교수·학습과정에서 발달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Kopp, 1982)로서 교육적 개입을 통해 향상될 수 있음이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되었는데, Kim(2002), Choi(2003), Park(2010) 등은 자기조절능력 향상프로그램의 교육적 개입을 통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유아의 활동성 기질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켜 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양육자들이 유아의 활동성 기질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양육을 통해 양육자와 유아 간에 보다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기조절능력의 긍정적 발달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하겠다.

둘째, 앞서 살펴본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에 대해 어머니-유아 간 애정관계 및 거부관계의 중재효과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유아 간 애정관계는 중재효과가 나타난 반면, 어머니-유아 간 거부관계는 중재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어머니와 유아 간 애정관계의 중재효과를 살펴보면, 특히 유아의 활동성 기질이 높을 경우보다 낮은 경우, 어머니-유아 간 애정관계가 조절작용을 함으로써 유아의 행동 및 정서조절능력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활동성이 낮고(An, 1997; Yoon, 2007; Kim, 2009), 어머니의 애정성이 높을 때(Silverman & Ragusa, 1990; Lim & Park, 2001; Lee, 2003; Kim et al., 2008)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결과는 활동성이 낮은 유아의 경우, 어머니-유아 간 애정관계를 통해 자기조절을 더 잘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한편, 활동성이 낮은 유아와 비교하여 활동성이 높은 유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유아 간 애정관계의 중재효과가 적게 나타났는데, 유아의 높은 활동성 기질의 경우 어머니-유아 간 애정관계의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추후 이에 대한 심층연구가 더 많이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밖에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Silverman and Ragusa(1990), Kim et al.(2008), 유아의 행동

조절과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Min(2010), 정서조절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Lee(2003), Kim and Lee(2008) 등 여러 선행 연구결과들과 같이 어머니-유아 간 애정관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독립효과를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유아의 기질을 함께 고려했을 때 어머니-유아 간 애정관계가 긍정적 중재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 어머니-유아 간 애정관계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유아 간 애정관계와 달리 어머니-유아 간 거부관계는 중재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어머니와 유아 간 거부관계의 독립효과만 고려했을 경우에는 거부적 양육행동이 자기조절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Hardy, Power, and Jaedicke(1993)는 강압적이고 거부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부정적 정서조절능력에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An(1997)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적대·거부행동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m and Park(2001)은 어머니가 자녀를 극단적으로 거부하거나 적대적으로 대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동에게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하며 슬픔이나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자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처벌하고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유아는 불안하고 불편하며 화나는 감정을 겪게 되고, 이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나아가 사회성, 정서능력, 문제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Gottman et al., 1997)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어머니-유아 간 거부관계의 독립효과는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고 있으나, 유아의 활동성 기질을 고려한 어머니-유아 간 거부관계의 중재효과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와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향후 이에 대해 더 많은 규명이 요구된다 하겠다. 한편, Kim(2005)은 어머니의 거부역할이 유아의 외현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행동의 강도, 빈도, 속도 등을 통제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는데,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의 상호작용을 검토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추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유아 간 거부관계는 유아의 행동조절과 정서조절에 대해 독립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상호작용하는 중재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어머니와 유아 간 애정관계는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상호작용하여 긍정적 중재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에는 어머니-유아 간 긍정적 관계가 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유아의 기질 특성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애정적 관계를 형성할 때 바람직한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어머니-유아 간 애정관계를 강화시켜주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며,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특히, 유아의 활동성 기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유아기는 자기조절능력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이며, 의미있는 발달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유아기의 바람직한 자기조절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서는 유아의 활동성 기질을 고려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활동성 기질이 낮은 유아보다 높은 유아의 경우, 어머니와 유아 간 애정관계의 중재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보다 전문적인 자기조절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자기조절능력의 관계에 대해 교사-유아 간 친밀감과 갈등의 중재효과를 알아본 결과 중재효과가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유아 관계의 독립효과만 고려했을 경우에는, 교사와 유아 간 관계에서 친밀감이 높고 갈등이 낮을수록 유아의 행동조절능력(Lee & Hyun, 2010) 및 정서조절능력(Kim & Jeon, 2010)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교사와 유아 간 갈등관계가 행동조절 및 정서조절과 부정적 관계로 나타난 Yu(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유아 활동성 기질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토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와의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은 교사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Yu & Kwon, 2008; Lee & Hyun, 2010), 유아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교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Kwon, 2005). Bergin and Bergin(1999)은 교사의 지속적인 설득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발달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Lee(2008)는 유아가 너무 활동적일 때 교사는 유아를 다루기 힘들다고 느끼거나 유아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아의 활동성은 교사-유아 간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방해요인이 될 수 있으며, 교사는 교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활동성이 높은 유아에게 감독과 지시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갈등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Ladd, Birch, and Buhs(1999)는 교사-유아 관계에서 높은 갈등과 낮은 친밀감이 유아의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에 기초하면, 교사-유아 관계는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대해 중재효과가 있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향후 이에 대해 규명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 교사-유아 관계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대해 독립효과는 나타났으나,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상호작용

하는 중재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만 5세 유아의 경우, 만 5세 미만 유아와 비교할 때 활동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으며 자기조절능력이 보다 발달됨에 따라 교사-유아 관계의 중재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만 5세 유아의 경우, 교사-유아 관계의 개입이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으며, 추후 연구에서 유아의 연령별 비교연구를 통해 이를 규명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유아의 활동성 기질은 어머니의 평가로만 이루어졌으므로 교사가 평가했다면 본 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교사에 의한 평가를 통해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경우에는 어머니와 교사가 각각 평가하였는데, 특히 유아의 행동조절능력에 대해 어머니보다 교사가 유의하게 더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이라는 각기 다른 생활환경에 따라 유아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유아는 가정에서와는 달리 단체생활에서의 규칙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자신의 행동을 보다 잘 조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를 지도하는 어머니와 교사가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연계지도를 수행한다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유아의 활동성 기질이 높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은 낮아진다. 둘째,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에 대해 어머니-유아 간 애정관계는 중재효과가 있다. 특히, 활동성 기질이 높은 유아보다 낮은 유아의 경우 어머니-유아 간 애정관계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더 많이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한편, 어머니-유아 간 거부관계는 중재효과가 없다. 셋째,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에 대해 교사-유아 간 친밀감 및 갈등관계는 중재효과가 없다.

본 연구의 결론과 관련하여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와 어머니의 보고에만 의존했다는 한계가 있다.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평가는 어머니와 교사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유아의 행동을 지각함에 있어 어머니와 교사가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으며(Hong, 2006), 유아에게 요구되는 행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개별적이고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Luster & Okagaki, 1993: 169) 때문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교사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유아 면접이나 관찰 등 질적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유아의 활동성 기질 및 자기조절능력 측정에 관해 보다 객관적으로 심층 정보를 추가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에 대해 어머니-유아 간 애정관계만 중재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대상인 만 5세 유아의 경우, 만 5세 미만 유아에 비해 활동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각 연령별로 유아의 활동성 정도를 비교해봄으로써 어머니-유아 관계의 중재효과에 대해 좀 더 규명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유아의 활동성 기질을 어머니를 통해서만 측정했다는 점에서 교사-유아 관계의 중재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유아의 활동성 기질에 대한 교사의 측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유아의 활동성 기질, 그리고 어머니-유아 관계 및 교사-유아 관계의 중재효과에 초점을 두었으나, 아버지-유아 관계, 그리고 또래관계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추후연구에서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체계적으로 관련지어 규명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에 대해 어머니-유아 관계 및 교사-유아 관계의 중재효과를 검증하였으나 중재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관련 연구결과와의 비교에 어려움이 많았다. 중재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들을 통하여 본 연구결과와의 비교 및 일반화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인천시에 소재한 일부 지역의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각기 다른 환경인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을 구분하여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에 대해 어머니-유아 관계, 교사-유아 관계가 미치는 중재효과를 각각 규명했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어머니-유아 간 애정관계의 상호작용 효과를 밝힘으로써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바람직한 어머니-유아 관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가정환경에서의 어머니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담임교사가 각각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평가하였는데, 특히 유아의 행동조절능력에 대해 어머니보다 교사가 더 높게 평가하였다. 즉, 유아가 생활하는 환경이 서로 다를 때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다르게 표출될 수 있음을 밝혔다. 넷째, 부모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지도함에 있어 개별 유아의 활동성 기질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지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REFERENCE

- 박광배(2003). *변량분석과 회귀분석*(개정판). 서울: 학지사.
- 송지준(2009).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과주: 21세기사.
- 우수명(2007). *마우스로 잡는 SPSS 14.0*. 서울: 인간과 복지.
- 이기숙·장영희·정미라·엄정애(2009). *유아교육개론*(개정판). 서울: 양서원.
- An, M. K.(1997).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self-regulation, temperament of children, and mother's child-rearing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An, R. R.(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individual variables, mothers' emotionality and the children's emotional development, social compet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Cha, H. A.(2006). *The correlation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perceived by teachers and their adjustment to kindergarten and 1st grade of elementary school: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Unpublished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Ulsan.
- Cho, Y. S.(2008).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maternal behavior, and maternal parenting efficacy on preschool children's self regul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Choi, E. S.(2003).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n emotion regulation competence program for childre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0(3), 271-300.
- Choi, H. J.(2010). *The influences effecting from infant's temperament as well as mother's rearing attitude and parenting stress, to infant's self-regulation: Having structural model as a main focu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aichai University, Daejeon.
- Choi, J. H.(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temperament, mother's child rearing attitude and child self-contr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Choi, J. H.(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temperament, mother's child rearing attitude and child self-control.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0(1), 133-146.
- Choi, M. S., & Kim, M. S.(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perceptions of children's tempera-



- ment, self-regulation and social competence.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42, 209-228.
- Choi, M. S., & Kim, M. S.(2006). Relations between children temperament by teacher's and mother's evaluation and self-regulatio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1(1), 1-22.
- Chung, E. J.(2005). *A study on variables affecting behavioral/ emotional self-regulation of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an's University, Seoul.
- Hong, K. O.(2006). A Study on the correlations between children's self-efficacy and children-teacher attachment.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1(2), 25-41.
- Huh, T. H.(2008). *The effects of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attitude on child behavior probl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Hwang, S. Y.(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achment representation based on narrative method and temperament, emotional and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Jang, Y. S.(2009). The relations of mothers' rearing attitude and children's temperament to children's self-regulatio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4(3), 207-225.
- Kang, G. S.(2001). *Mother's childrearing behavior, children's cognitive style, and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self-control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 Kim, E. S.(2008). *Young children's temperament perceived by teachers and self-regul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 Kim, H. J.(2009). *The effect of young children's temperament and their mothers' bringing-up beliefs on their self-regul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H. J., & Jeon, K. A.(2010). Influence of child-teacher relationships and children's self-regulation ability on the children's peer interactions. *Korean Journal of After-School Child Education*, 7(2), 17-34.
- Kim, H. K.(2005).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role of mother and infant self regul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H. N., & Lee, K. N.(2008). Young children's temperament, and emotional regulation,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young children's peer competence by children's sex.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3(5), 71-92.
- Kim, J. A.(2002). *The effects of self-regulation improvement program on children's self-regul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Kim, J. J.(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s temperament, mother's verbal control patterns, kindergarten adaptation and child's self-contr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Kim, S. H.(2006). *The relationships of children's self-regulation ability and the related variab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
- Kim, S. H.(2009). The effects of temperament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s on young children's behavior problem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9(5), 203-224.
- Kim, Y. H.(1996). The relationships between temperament, their mothers' childrearing behavior, and adjustment among kindergarten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7(2), 19-32.
- Kim, Y. H.(1998). A study on temperament and adjustment in preschool children. *Daejin Theses Collection*, 6, 115-128.
- Kim, Y. O., Hong, J. M., Kim, S. R., & Kim, K. I.(2008).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rear attitude and young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social ability.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3(1), 205-228.
- Ko, H. R.(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temperament, delayed gratification ability, intelligence quotient, conservation concept and teacher-young children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Ulsan.
- Kwak, H. K.(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instigators to maternal control, maternal control strategies and children's self-control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Seoul.
- Kwak, H. K., & Cho, B. H.(1999).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maternal control strategies and children's self-control behaviors. *Korean*

- Journal of Child Studies*, 20(1), 1-12.
- Kwon, S. J.(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child-rearing behavior and young children's self-regul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 Lee, E. J.(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a parent's attitude of bringing up children and children's self-regul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Lee, H. R.(2003). *The relation between preschoolers' individual and parents' characteristics, preschoolers' emotional understanding and regulation, social compet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Lee, J. H.(2008). *Structural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preschool children's peer compet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Seoul.
- Lee, J. R.(2003). *Structural analysis of factors and related variables of self-regulation in young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 Lee, J. S.(2001). *Preschool children's representation of attachment: Associations with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social compet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Seoul.
- Lee, K. N.(1996). *The effects of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 for self-control on the improvements of self-control, task performance and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skills in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 Lee, K. N.(2001). The causal relations of children's self-control and related variables: Focusing on the children's reflection, self-concept and mother's parenting.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9(2), 97-110.
- Lee, K. N.(2009). The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parent related variables and victimization by peer harassment on behavioral problems among childre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7(7), 1-12.
- Lee, S. A., & Hyun, E. J.(2010). Teacher-child relations: Interactions with children's peer-competence and self-regula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1(2), 1-15.
- Lee, Y. S.(2011).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regulation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nursing behaviors and children's leadership.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6(1), 173-203.
- Lim, H. S., & Park, S. Y.(2001). Child's sex, temperament, mother's emotion regulation and parenting as related to child's emotion regula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3(1), 37-54.
- Min, H. Y.(2010). The mediation effects of affection-rejection parenting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report of marital conflicts and preschoolers' behavioral and emotional control.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8(5), 1-12.
- Min, H. Y.(1998). *A study on environmental and individual inner variables affecting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Na, E. S., & Lee, J. I.(2008). A test on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control questionnaire: A parenting scale for Korean parents having young childre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5(3), 215-247.
- Oh, J. Y.(2010). *Teacher-child relationships related to the child's individual characteristics,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Park, H. S.(2002). *The relation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and his/her their mothers parenting methods, and childrens behavioral self-regul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angmyung University, Seoul.
- Park, J. H.(2010). *A study on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to improve programs of self-regulation ability for young children: A study on the effect to improve of self-regulation ability and to reduce aggres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Park, Y. T., & Lee, K. N.(2011).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temperament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 on self-control of childre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6(1), 235-256.
- Won, Y. M.(1990). *A study on the relation of child's temperament, and its related variables to child's adjustment in kindergart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Yoon, J. Y.(2007).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temperament, mother's attitude toward children'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hildren's self-regul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Youn, J. J., Kang, S. Y., & Lee, B. J.(2005). A study for young children's aggression and relationship of relative factors: Concentrating on young children's temperament, self-regulation and mother's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4(5), 761-770.
- Yu, J. M.(2009).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eacher-child relationship, young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peer compet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Chungju.
- Yu, J. M., & Kwon, H. K.(2008).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s and teachers' demographic variables, teacher- child relationship, child's self-regulation and peer competency among preschool children in early childhood setting.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Forum*, 8(1), 265-290.
- Barron, A. P., & Earls, F.(1984). The relation of temperament and social factors to behavior problems in three-year-old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5(1), 23-33.
- Bates, J. E.(1980). The concept of difficult temperament. *Merrill-Palmer Quarterly*, 26(4), 299-319.
- Bergin, C., & Bergin, D.(1999). Classroom discipline that promotes self-control.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0(2), 189-206.
- Buss, K. A., & Goldsmith, H. H.(1998). Fear and anger regulation in infancy: Effects on the temporal dynamics of affective expression. *Child Development*, 69(2), 359-374.
- Caspi, A., Henry, B., McGee, R. O., Moffitt, T. E., & Silva, P. A.(1995). Temperamental origins of child and adolescent behavior problems: From age three to age fifteen. *Child Development*, 66(1), 55-68.
- Dunn, J., & Kendrick, C.(1980). Studying temperament and parent-child interaction: Comparison of interview and direct observation. *Development Medicine and Child Neurology*, 22(4), 484-496.
- Eisenhower, A. S., Baker, B. L., & Blacher, J.(2007). Early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of children with and without intellectual disability: Contributions of behavioral, social, and self-regulatory competence.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5(4), 363-383.
- Goldsmith, H. H., & Campos, J. J.(1982). Toward a theory of infant temperament. In R. N. Emde, & R. Harmon(Eds.), *The development of attachment and affiliative systems: Neurobiological and psychobiological aspects*(161-193). N.Y.: Plenum.
- Gottman, J. M., Guralnick, M. J., Wilson, B., Swanson, C. C., & Murray, J. M.(1997). What should be the focus of emotion regulation in children? A nonlinear dynamic mathematical model of children's peer interaction in group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2), 421-452.
- Gottman, J. M., & Katz, L. F.(1989).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73-381.
- Granlinski, J. H., & Kopp, C. B.(1993). Every rules for behavior: Mothers' requests to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9(3), 573-584.
- Hardy, D. F., Power, T. G., & Jaedicke, S.(1993). Examining the relation of parenting to children's coping with everyday stress. *Child Development*, 64(6), 1829-1941.
- Hestenes, L. L., Kontos, S., & Bryan, Y.(1993). Children's emotional expression in child care centers varying in quality.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3), 295-307.
- Honig, A., & Wittmer, D.(1994). Encouraging positive soci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49(5), 4-12.
- Klein, H. A.(1980). Early childhood group care: Predicting adjustment from individual temperament.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7(1), 125-131.
- Klein, H. A.(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and adjustment to kindergarten and Head Start settings. *The Journal of Psychology*, 112(2), 259-268.
- Kochanska, G., & Aksan, N.(1995). Mother-child mutually positive affect, the quality of child compliance to requests and prohibitions, and maternal control as correlates of early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6(1), 236-254.
- Kochanska, G., Cay, K. C., & Murray, K. T.(2001).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in the first four years of life. *Child Development*, 72(4), 1091-1111.

- Kopp, C. B.(1982).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99-214.
- Kopp, C. B.(1989).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s: A developmental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43-354.
- Kuczynski, L., & Kochanska, G.(1990). Development of children's noncompliance strategies from toddlerhood to age 5. *Developmental Psychology*, 26(3), 398-408.
- Ladd, G. W., Birch, S. H., & Buhs, E. S.(1999). Children's social and scholastic lives in kindergarten: Related spheres of influence? *Child Development*, 70(6), 1373-1400.
- Lengua, L. J.(2002). The contribution of emotionality and self-regulation to the understanding of children's response to multiple risk. *Child Development*, 73(1), 144-161.
- Low, C. M.(2003). *Self-regulation in children with and without developmental delays: Roles of cognition, temperament and parent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Luster, T., & Okagaki, L.(1993). 박성연 · 도현심 · 정승원 공역(1996). *부모-자녀 관계: 생태학적 접근*. 서울: 학지사.
- Mary, R., & Laura, B.(1998). Temperament, self-regulation, and education. *School Psychology Review*, 27(4), 479-491.
- McCall, R. B.(1990). Infant research: Individual differences. *Merrill-Palmer Quarterly*, 36(1), 141-158.
- O'brien, R. M.(2007). A caution regarding rules of thumb for variance inflation factors. *Quality & Quantity*, 41(5), 673-690.
- Parker, J. G., & Asher, S. R.(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 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 Pianta, R. C.(1991). *The 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 Unpublished paper, University of Virginia, Charlottesville, VA.
- Rohner, R. P.(2005). Parental Acceptance-Rejection/Control Questionnaire(PARQ/control): Test manual. In R. P. Rohner, & A. Khaleka(4th ed.),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137-186). Storrs, CT: Rohner Research Publications.
- Shaffer, D. R.(2002). 송길연 · 장유경 · 이지연 · 정윤경 공역 (2005). *발달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Silverman, I. W., & Ragusa, D. M.(1990). Child and maternal correlates of impulse control in 24-month-old children.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16(4), 435-473.
- Thomas, A., & Chess, S.(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Y.: Brunner/Mazel.
- Thomas, A., Chess, S., & Korn, S. J.(1982). The reality of difficult temperament. *Merrill-Palmer Quarterly*, 28(1), 1-20.

접수일 : 2012년 01월 14일  
 심사일 : 2012년 02월 07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2월 29일